

### 북가주 한국학교협 '한국어 구연동화' 대회



11일 캠벨 새하늘우리교회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어 구연동화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한인 차세대들이 '제13회 한국어 구연동화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마음껏 뽐냈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회장 장은영)가 주최하고 SF한국교육원(원장 신주식)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총 15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캠벨 새하늘우리교회(담임 장호수 목사)에서 열렸다.

으뜸상은 '작은 씨앗의 꿈'을 발표한 조유진 학생(성 김대건 한국학교)이 차지했다.

최미영 심사위원장은 "구연대회 특성상 1인 다역을 해야 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발표했다"며 "소품 준비를 비롯해 발표의 전달력·표현력·내용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완벽했으며, 특히 의성어를 많이 써서 생생한 느낌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장은영 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뛰어난 발표력과 리더십으로 향후 주류사회에서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해가 지날수록 향상되는 학생들의 실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구연동화 대회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으뜸상: 조유진 ▶ 금상: 김하얀 ▶ 은상: 임아린·조유리 ▶ 동상: 엄지윤·곽은영·김주완 ▶ 장려상: 서정우·김재신·홍예지·최예선·서주리·손예영·나시현·김민호.

박효목 인터넷기자

---

<http://www.koreadaily.com>

POWERED BY **JO!NS** AMERICA